

대학무용교육에서 소매틱의 위치*

**
유 화 정

목차	Abstract
	I. 서론
	II. 학술담론에서 소매틱의 정의와 특성
	III. 대학무용교육에서 소매틱 적용 사례와 방향
	IV. 결론
	참고문헌

* 본 논문은 한국무용교육학회 제 30회 학술심포지엄(2023) '무용의 확장과 교육의 과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무용학전공 실용무용과정 교수

논문투고일 : 2023.07.24

논문심사일 : 2023.08.10

게재확정일 : 2023.08.26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of Somatics for paradigm change in university dance education

Yoo, Hwa-jung · Sejong University

This study specified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of somatics to explore the role of somatics for the paradigm change of university dance education. To this end, the academic discourse related to somatics was investig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related to somatics, which have been operated as dance major subjects in universitie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omatics in academic discourse were derived as 'Soma as an experiencing body, and the unity of body and spirit', 'integration of scattered areas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changing life process and embrace of surrounding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urses related to somatics that have been operated at Ewha Womans Universit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it was found that multidisciplinary contents using somatics were the main focus rather than contents that specialized in a specific type of somatics.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it flexibly responds to the instructor's competency and student's learning demand, emphasizes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of somatics that can be expanded to choreography, education, and research, and leads the design of creative somatic programs by students themselves.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of Somatics will be used in the composition and research of subjects encompassing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s a way to expand and change university dance education.

〈key words〉 Somatics, Soma, body, movement, university dance education

〈주요어〉 소매틱, 소마, 몸, 움직임, 대학무용교육

무용과에 입학한 대학생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입시 무용에 할애하며 10대의 시절을 보낸 이들이다. 대학 입학 후에 비로소 무용실이 아닌 세상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고, 무용 전공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고찰한다. 외부에 대한 탐색은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인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정인데 종래의 대학무용교육은 외부 탐색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점이 있다. 대학 내 무용과가 개설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중심의 세부전공을 토대로 대학무용교육 과정이 구축되었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60여년의 시간동안 대학 바깥의 무용 환경은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였다. 무용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유형이, 사회 구조가, 문화의 패턴이 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현재 부상하고 있는 대학무용교육의 위기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무용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만이 극복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춤의 매력과 의미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강렬했으므로 지금의 위기는 춤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보다 어떤 춤이 과연 현재의 춤인지 고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대학무용교육 과정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방책의 일례로 몸과 움직임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소매틱에 주목한다. 소매틱은 특히 춤의 주변에 대한 탐색과 흡수, 춤추는 사람의 일상과 비일상 사이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현대 무용예술 및 교육의 미래지향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대학무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무용학의 확장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을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첫째, 현재까지 선행되어 온 학술담론 속 소매틱의 정의와 특성을 탐색한다. 둘째, 국내 대학무용교육에서 소매틱 관련 교과목의 구성 흐름을 파악한다. 셋째, 소매틱 관련 교과목의 운영 사례를 통해 실제 운용될 수 있는 학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소매틱 관련 학술담론 및 교과목 운영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무용학 및 대학무용교육 환경에 적합한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을 논하는 것에 초점을 두므로 선행연구는 국내외의 문헌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되, 소매틱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은 국내 대학으로 제한하여 살핀

다. 또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 교육되고 있는 소매틱은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고, 본줄기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까지도 수용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에서 각 유형별 소매틱의 차별성보다는 그들이 공유하는 철학, 원칙, 방향성에 주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그간의 소매틱 관련 연구는 특정 소매틱의 개념, 정의, 유형을 개괄하거나 움직임 훈련 과정에 대한 질적 의미, 양적 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대표적으로 김경희(2017)의 ‘소매틱 움직임 교육/치료를 위한 기본 원리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산재된 소매틱의 원리를 정리하여 교육과 치료에 유의미한 5가지 원리로 제시하였다. 박혜연, 조기숙(2016)의 ‘소매틱(Somatics) 기반 움직임 교육원리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교육적 목적으로서의 소매틱에 관해 목표, 내용, 방법을 개괄하고 이를 통해 움직임 교육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경은(2018)의 ‘소매틱 즉흥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계기반연구’는 무용수, 배우 등 움직임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즉흥무용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정민, 유화정(2021)은 ‘소매틱 경험과 의미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는 라반/바르테니에프 연구소에서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탈 교육과정을 경험한 두 연구자가 체험한 의미들을 구조화하고 국내 움직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정명(2014)의 ‘심신통합적 움직임 교육으로서의 무브먼트 리추얼movement ritual에 관한 고찰’에서는 안나 할프린의 동작 교육법이 심신통합적 관점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외에도 소매틱의 움직임 원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안무 작업에 활용하고자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 설립된 소매틱 교육 기관에서 전문 자격과정을 수료한 무용가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와 실험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라 소매틱에 내재된 공통의 원리를 탐색하되 대학무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학제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매틱의 교육적 효과와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으나 대학이라는 특수 기관에서 실행될 수 있는 소매틱 교육에 대한 고찰은 미비한 상태이다. 더불어 무용과의 통폐합이 빠르게 이뤄지는 현재, 대학무용교육의 존속에 대한 의구심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을 찾고자 한다.

II 학술담론에서 소매틱의 정의와 특성

학술담론에서 다루고 있는 소매틱의 정의와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DBpia, 국회도서관, JSTOR, Google Scholar에서 ‘소매틱Somatic, 소매틱스Somatics, 소마Soma’를 조합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총 73편의 국내외 논문을 열람하였고 그로부터 본 연구문제에 적합한 22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선행연구로 삼았다. 또한 국제 소매틱 움직임 교육과 치료 협회(IMESTA)를 포함하여 관련 소매틱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열람하였으며 탐색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험하는 몸으로서의 소마, 그리고 몸과 정신의 합일

“소마Soma는 인간의 내적인 생물학적 체계와 외적인 환경요소 모두를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몸을 의미한다”(김정명, 2015:5). 제대로 각성(awareness)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혹은 환경에 의해 객관화되고,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몸은 소마라고 볼 수 없다. “정신과 영혼이 깃든 총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신체의 이완, 감각의 회복을 통해 주변을 인지하기 위해서는”(조기숙, 박혜연, 2016:144) 무엇보다도 몸과 정신의 합일이 강조된다. 특히 현대인은 손쉽고 빠른 속도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술,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신체 움직임이 점차 소멸되거나 관습적인 움직임의 반복만을 경험하기 쉽다. 이에 소마의 개념을 통해 일상에서,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움직임을 통한 자신의 생명력을 재인식하여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에 주목하는 것이다.

“소매틱Somatics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신경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Hanna, T.였다. 소매틱은 전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몸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soma’에 학문을 의미하는 접미사 ‘tics’가 붙어 만들어진 것이다”(임성용, 2020:2). “Hanna, T.는 소마에 관해 신경세포체(Neuron Cell Body), 즉 신경의 감각을 전달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또 나라는 존재가 몸 자체이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으로서의 본질을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Hanna, T., 1976:11). 소매틱은 이러한 소마를 연구하는 학문이자 요법으로, 학습자는 잊고 있던 몸의 감각과 잠재적인 능력을 스스로 탐색하여 각성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몸학’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소매틱은 몸과 정신의 통합을 전제로 몸이 인지하는 경험과 감

각으로 체화된 지식을 발견케 하고, 세상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

“몸이란 사고를 관장하는 뇌, 그리고 감각의 전달을 담당하는 척수를 포함하여 정교하게 짜인 신경망이 전신에 뻗어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Barlassina, L., Newen, A., 2014:639).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으나, 연결성을 설명하기 전에 몸과 정신을 각기 독립적인 개체로 볼 것인지 합일된 상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고대부터 신체 움직임으로 기氣와 혈血의 순환을 돕고 정신을 다스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요법이 춤, 명상, 무예 등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 몸과 정신의 합일을 강조해왔다. 반면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서구에서는 이원론에 입각하여 몸과 정신, 이성과 감정, 이상과 현실 등 서로 상반된 성질을 도출함으로써 만물과 현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20세기에 이르러 정신의 분석 및 마음의 표현에 주목하는 사회문화적 흐름과 함께 몸과 정신의 연결성을 탐색하는 신학문과 현대예술이 등장했으며, 이제는 몸과 정신의 합일을 인지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자유로운 상태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소매틱은 서구 철학이 도달한 최근의 목적지이며, 상대적으로 몸과 정신의 합일을 오랫동안 지향해온 동양권의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등 상호 보완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소매틱은 ‘국제 소매틱 움직임 교육과 치료협회(International Somatic Movement Education and Therapy Association, 줄여서 ISMETA)’에 의해 관련 접근법들과 기관의 연계성을 지지하고, 소매틱 움직임 교육자 및 소매틱 무용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다. ISMETA에 등록된 공인 기관은 2023년 7월 기준 LIMS(Laban/Bartenieff Institute of Movement Studies), Alexander Technique Center, EMOVE(Emove Institute), BMC(Body-Mind Centering), Tamalpa Institute, Dynamic Embodiment 등 34개 곳이 북미, 남미, 유럽, 동아시아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전문가 및 교육 자격 과정을 제공하고 연구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한다.

2. 다학제적 접근과 영역의 통합

“Hanna, T.는 1970년에 발간된 저서 『Bodies in Revolt』와 1976년 창간된 학술지 ‘Somatics Magazine-Journal of The Bodily Art and Sciences’를 통해 소매틱이라는 용어를 적극 사용했다”(김경희, 2017:22). 그는 세상에 없던 용어의 정의와 범주를 발표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그의 주된 역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영역들을 통합한 데 있었다. “20세기 초부터 실

존주의, 현상학, 표현주의가 확산되면서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겪은 무용가, 교육자, 심리학자, 과학자, 치료사들은 신체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몸과 세상을 탐구하는 체계에 관심을 기울였다”(이정민, 유화정, 2021:90). 이에 “움직임의 인지를 통한 치료법 및 연구법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실천되며 내용상의 연결과 경쟁을 거듭하고 있었던 때 Hanna, T.의 용어 정리에 의해 하나의 루빅rubik으로 통합된 것이다”(Eddy, M., 2009:7).

이후 “소매틱은 움직임 작업, 신체 치료, 핸드온Hands-on(손을 통한 접촉)작업, 움직임 요법, 몸과 마음의 원리, 움직임 교육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며”(Eddy, M., 2002:47) 지식의 학습이나 현상의 이해 과정에서 움직임 작업이 핵심 활동으로 반영되는 학문 및 요법의 영역들을 모두 포함할 만큼의 범주 확장을 이루고 있다. 소매틱으로 명명 가능한 움직임요법 및 연구법은 ISMETA에 등록된 34개의 기관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형의 학습체계가 발전되고 있는데 특히 알렉산더 테크닉, 모쉐 헬든크라이스,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털, 타말파의 움직임 학습 과정이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은 훈련 동작의 형태나 설명의 방식, 강조하는 지점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몸과 움직임의 메커니즘, 즉 주체적으로 체험하고 탐구하는 몸이 인식해야 할 특성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 중 첫째, 신경가소성은 사람의 신경세포가 환경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재조직되며 이를 기억하여 습관화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온 움직임 습관에 반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의 학습을 반복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고유수용감각은 신체 부위의 위치나 움직임에 관한 세부 정보를 스스로 확실히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감각으로 관절, 근육, 심부 등에 위치해 있다. 고유수용감각의 발달은 자세 조절 및 중력에 대한 감각 발달과 연계되며 이것은 새로운 움직임의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감각통합은 시각, 청각, 촉각, 고유수용감각 등이 통합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은정, 2016:368). 따라서 개인은 움직임 학습을 통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한편, 초기 소매틱의 등장과 열풍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학(communication studies)의 영향이 크다. 커뮤니케이션학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행위, 상징적 수단 등을 통해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몸으로 인식되고 표출되는 원리를 탐구하는 소매틱이 인간, 사회, 문화의 관계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소매

틱 용어 관련하여 흔히 발견되는 패러다임은 생태학, 여성학, 영성, 문화적 다원성, 비폭력적인 변화인데”(Eddy, M., 2002:47) 이들 학문 모두 인간 개인의 본질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깊은 관계에 있다.

소매틱스의 목적과 효능은 전인교육의 교육적 목적과 대체의학의 치료적 목적 사이에 걸쳐있다. 앞서 언급한 소매틱의 매커니즘은 심리학, 뇌과학, 생태학의 영역을 아우르며 하나의 대체의학으로서 병원 및 상담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소매틱 방법론들은 저마다의 원칙과 기술을 발전시켰으나 공통적으로 접촉을 통한 인지, 대화를 통한 소통, 글과 그림을 통한 보조적 표현, 경험적 해부학에 대한 신뢰, 이미지와 음악을 활용한 상상, 습관적인 움직임 패턴의 재인식과 재교육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한 훈련들은 성별, 연령, 직업, 문화의 차이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하며 움직임을 통해 개인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의 이론 체계를 경계 없이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소매틱은 철학, 과학, 예술을 통합한 학문이자 현장성이 강한 실습으로서 세부적인 구성요소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3. 변화하는 삶의 과정과 주변의 포용

“소매틱은 자신의 내부와 밀접하게 관계하며 지식을 얻는 방법이므로, 삶의 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따라가는 여정이자 적응의 과정이다”(Hanna, T., 1988:21). 개인에 따라 소마의 기능이 역동적인 만큼 소매틱을 통해 발견하는 이치와 효능 역시 가변성을 지닌다. 또 주체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존재를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지식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자신의 경험과 주변 상황으로부터 크게 영향 받는다. 따라서 소매틱의 학습 과정에서 바른 길과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전문가의 움직임 시퀀스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최선의 방향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움직임을 구성하고 자신만의 탐색과 개성 있는 기록 및 표현을 창출하는 데 있다.

“소매틱에서 시도하는 움직임들은 학습자의 지난 삶에서 관습적으로 패턴화된 근육, 골격 등의 움직임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이정명, 2014:170).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신체 부위와 움직임을 새롭게 시도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하여 미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소매틱에서는 특히 자연스럽게 유연하며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하며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 습관을 인지하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Hanna, T.는 생명이란 ‘무엇’으로 정의내릴 수 없으며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마를 이해하는 경험이 곧 변화하는 삶을

이해하고 생명으로서의 과정을 오롯이 체험하는 실천이므로 자신의 원초적인 움직임의 회복과 주변의 포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Hanna, T., 김정명 역, 2013:36). 삶에 관여하는 소매틱의 특징은 개인마다 다른 지형도를 그리는 역동적인 삶에 주목하되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삶과 삶이 만나 구성하는 관계의 연결성을 인식하면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상과 우주의 본질을 헤아리는 범주까지 나아간다. 바르테니에프는 움직임 기초원리가 곧 관계 기술(relationship technique)이며 움직임 훈련을 일상에서 반복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슴과 팔의 움직임 범주를 확장하기 위해 골반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신체부위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이지만, 이를 통해 삶 속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어떻게 순응해야 하는지 학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Hackney, P., 신상미, 김재리 역, 2015:41).

한편 초기부터 현재까지 소매틱 학습 영역에 다수의 무용 전문가들이 진입하면서 소매틱 움직임과 무용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에 예술로서의 무용 표현 및 창작과 다학제적인 소매틱 이론 체계가 융합되어 개인의 변화하는 삶과 주변에 대한 인식을 표현 요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삶과 내적 태도를 춤에 적극 반영하는 즉흥 안무 작업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맞는 움직임을 찾아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소매틱이 활용된다”(이정은, 2018:85). 이는 안무가 혹은 무용수가 움직임 연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성을 인식하여 춤에 반영하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현대 무용예술의 특성과 맞닿는다. 이것은 곧 표현과 창작의 무용예술이 소매틱과 융합되어 치료, 교육, 창작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III 대학무용교육에서 소매틱 적용 사례와 방향

1. 대학무용교육의 흐름

국내 대학의 무용교육체제는 국내 무용학 및 무용예술의 발전 흐름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것은 무용과 졸업생의 진로 개발에 있어 무용계 내부와 주변의 상황을 수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무용 인재로 양성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며, 대학무용교육의 구성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이 무용학자 및 무용가로서의 활동을 겸하는 실정으로부터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무용학은 근 100년 사이 괄목할만한 발전과 확장을 이뤘는데 역사학과 미학을 중심으로 무용예술의 유형과 체계를 정리하던 초기 형태에서 시작하여 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기록학 등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복합적인 지식체계의 세부 학문 분과를 구성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2016:292).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터넷 기술, 멀티미디어 기기, 디지털 퍼포먼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 가상현실 속 춤을 다루는 방식의 학문 분과가 등장하였다. 또 202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사고력 및 인공지능 기술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의 물결에 부흥하여 컴퓨터공학과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학문 분과가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급격히 발전되는 과학 기술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과 무용예술의 본질 회복을 위해 원초적 움직임부터 파악코자 하는 방식이 소매틱, 움직임분석, 포스트휴머니즘과 무용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즉 “국내 무용학은 학문적으로 독립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무용예술로서의 다양한 춤 유형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 구축을 위해 타학문의 지식 체계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학제 간 활발한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태혜신, 박명숙, 2012:3).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이 대학무용교육에 활용되는 지점을 파악하기에 앞서 대학무용교육의 교과목 구성 방식을 살피기 위해 한국 최초로 4년제 대학의 무용과를 설립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공 교과목 개설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전공 교과목 구성의 흐름
(중복되는 교과목명에 심화수준만 나타낸 경우는 제외함)

기간	교과목명
1963년	무용, 무용개론, 무용교과과정, 실기, 민속무용
1971~1975년	무용개론, 한국무용, 외국무용, 민속학, 무용사, 색채학, 무용미학, 무용감상, 무용교육론, 창작법, 무용작품해설, 음악, 무대미술, 기능학, 민속무용, 해부학, 생리학, 통계학, 무용색채학, 건강관리, 운동역학, 무용세미나, Folk Dance, 한국무용사, 외국무용사
1981~1985년	체육원리, 외국무용사, 음악, 한국무용, Ballet, 현대무용, 민속무용, 무용원론, 해부학, 창작법, 민속학, 색채학, 교육무용, 운동기능학, 운동심리학, 학교보건, 무용감상론, 무용작품해설, 무용웁삽, 교육무용, 리듬원리, 한국무용웁삽, 발레웁삽, 현대무용웁삽, 동작분석과 표현, 무용창작법
1991~1995년	외국무용사, 한국무용, Ballet, 현대무용, 무용원론, 운동심리학, 무용창작법, 한국무용사, 미학, 무용감상론, 색채학, 리듬원리, 동작분석과 표현, 민속학, 한국무용웁삽, 발레웁삽, 현대무용웁삽, 무용개론, 무용음악입문, 무용교육개론, 무용음악실기, 재즈, 무용연기법, 무용해부학, 무용기능개론, 무용원서강독, 무용분석학, 민속무용, 무용지도법, 무용미학입문, 무용연구법, 예배무용웁삽, 무용레퍼토리연구, 무대미술 및 디자인, 동작분석과 기보법, 무용비평분석
2001년~2005년	한국무용, Ballet, 현대무용, 무용개론, 무용창작법, 무용음악입문, 기독교와 무용, 외국무용사, 작품해설, 무용음악분석, 무용미학입문, 한국무용웁삽, 발레웁삽, 현대무용웁삽, 무용지도법, 한국무용호흡법, 무용해부학, 무용기능학, 무용비평, 무용교육개론, 한국무용레퍼토리, 민속학, 예배무용웁삽, 무대미술 및 디자인, 무용상해 및 요법, 무용기보법, 평생무용웁삽, 무용연구법
2011년~2015년	한국무용실기, 발레실기, 현대무용실기, 무용기보와 창작, 의식무용창작웁삽, 한국무용사, 외국무용사, 무용교육개론, 무용지도K-12, 컨템포러리무용비평, 한국무용고급, 발레고급, 현대무용고급, 무용양식연구, 몸과 움직임읽기, 무용미학의 기초,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 한국무용웁삽, 발레웁삽, 현대무용웁삽, 무용연구 및 현장조사, 한국무용호흡법, 한국무용레퍼토리, 발레레퍼토리, 현대무용레퍼토리, 무용리더십세미나, 대중문화와 무용
2021년~2023년	무용창작기초, 발레실기, 한국무용실기, 현대무용실기, 무용교수학습방법, 발레고급, 한국무용고급, 현대무용고급, 무용양식연구, 몸과 움직임 읽기, 발레웁삽, 한국무용웁삽, 현대무용웁삽, 무용연구 및 현장조사, 무용창작웁삽, 외국무용사, 무용미학,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 발레레퍼토리, 한국무용레퍼토리, 현대무용레퍼토리, 대중문화와 무용, 무용교육론, 무용예술론, 무용리더십세미나, 무용인턴십, 댄스미디어

위의 표에서 나타난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전공 교과목 구성의 흐름을 보면, 90년대를 기점으로 과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실기 수업의 경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세 가지 세부 전공과 창작법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과목의 큰 변화가 과목명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이론 수업의 경우 역사, 철학, 미학, 인류학, 문화, 교육학, 과학, 해부학, 운동역학, 사회학, 미디어연구, 치료학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타 학문의 이론적 체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소매틱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교과목을 살펴보면 소매틱에서 다루는

이론체계가 ‘해부학, 대체의학, 기능학, 치료학, 움직임분석, 심리학, 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으로 나타남을 상기할 때 ‘기능학, 해부학, 생리학, 운동역학, 운동기능학, 운동심리학, 동작분석과 표현, 리듬원리, 무용상해 및 요법, 무용해부학, 무용기능학, 몸과 움직임 읽기,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으로 추릴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인 소매틱으로 명명되는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털, 알렉산더 테크닉, 펠덴크라이스 메소드, 타말파 등 특정한 움직임 체계를 집중하여 다루는 교과목명은 부재한다. 그러나 소매틱 저변의 이론적 체계와 융·복합된 교과목이 상당수 운영되었고, 2020년대 이후 일부 과목이 삭제되면서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의 한 과목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다루지 못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과목의 경우, 무용과에서 개설한 ‘여성의 몸과 창조적 움직임’, ‘춤과 명상’, 체육대학에서 개설한 ‘움직임을 통한 감정 코치’가 소매틱 관련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비교과프로그램으로서 ‘의사소통의 마법: 강의와 발표를 위한 바디랭귀지’, ‘대학원생을 위한 몸과 삶 챙김: 바디폴니스 코칭’이 운영된 바 있다. 또 이외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무용 관련 전공의 경우 소매틱에 대한 학습 수요의 증가와 미래인재양성에 기능하는 다학제적 활용 가능성을 감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매틱 관련 교과목의 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성신여자대학교의 ‘소매틱스’, 명지대학교 융합치료대학원의 ‘소마댄스와 치유’, ‘소매틱 요가’가 있다.

2. 소매틱을 활용한 학제적 교과목 사례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전공교과목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 이 과목은 소매틱, 무용기능학, 무용치료학, 동작분석법, 무용해부학, 무용상해 및 요법 등의 접근법을 두루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움직임의 체화된 지식을 경험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무용생활의 영위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 학기 30회로 구성된 주요 강의 내용 중 바디컨디셔닝의 개념과 유형이 2회, 무용동작심리치료의 역사와 실체가 2회, 소매틱 내용이 7회, 움직임분석 관련 내용이 3회, 해부학 내용이 7회, 상해와 치료 관련 내용이 2회로 구성되며 나머지 수업은 개인 프로젝트 및 평가를 위한 시간으로 할애된다.

이 중 소매틱 관련한 세부적 강의 내용은 (1)소매틱의 정의와 매커니즘, (2)소매틱의 계보와 흐름-펠덴크라이스 메소드, 토마스 한나, 타말파, 가가(Gaga movement language), (3)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털의 기초원리, (4)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털의 여섯가지 기본훈련 (5) 소매틱의 치료적 활용 (6) 소매틱의 교육적 활용 (7) 소매틱의

안무적 활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탈의 기초원리와 여섯가지 기본훈련을 다룰 때는 움직임의 주요 주제인 ‘안정성(Stability)과 운동성(Mobility), 기능(Function)과 표현(Expression), 노력(Exertion)과 회복(Recuperation), 내면성(Inner)과 외형성(Outer)’의 상대적 개념들이 상호 보완, 대립하면서 조화로운 움직임을 창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 움직임 발생의 원칙들에 관해 ‘동적인 신체 정렬(Dynamic alignment), 호흡지지(Breath support), 회전 인자(Rotary factor), 움직임의 시작과 과정(Initiation&Sequencing), 중심지지(Core support), 공간적 의지(Spatial intent), 에포트 동기(Effort motivation), 무게 이동(Weight shift), 발달 유형(Developmental patterning)’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몸 움직임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이 중 ‘발달 유형’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생명의 진화 및 성장 과정의 패턴을 움직임의 진화론으로 명명하여 ‘숨쉬기(breathing)-중심방사(core-distal)-척추(head-tail)-상동움직임(upper-lower)-상측움직임(body half)-대측움직임(diagonal)’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매틱 참여자는 발달 유형의 각 단계별 움직임들을 처음부터 되짚는 움직임 훈련을 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신체와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경험은 물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움직임 및 인지 기능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강의 내용 중 (8), (9)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매틱을 전통적인 이론 학습과 실습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무용과 학생들의 다채로운 진로 창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단계이다. 즉 소매틱의 안무적 활용은 안무가의 직업 활동에 동반될 수 있는 움직임 작업, 무용단 구성원과의 소통, 안무 과정에 대한 움직임 저널쓰기, 커뮤니티댄스 작업의 구성된다. 소매틱의 교육적 활용은 무용교육자로서 다양한 연령, 성별, 전공의 학습자를 만날 때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 수업의 시작과 종료 단계를 유의미한 활동으로 구성하기, 학습자의 잠재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는 역량 등에 접근한다.

끝으로 소매틱을 활용한 학제적 교과목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사의 역량과 학생의 학습수요에 따라 강의목적과 내용을 유동적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자가 이 수업을 담당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 학기 수업 시작마다 ‘강의 진행을 위한 학습자 설문’을 실시하여 수강 학생들의 사전 학습 현황과 세부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수집하여 강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가와 필라테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 요법들을 깊이 있게 경험한 바 있었으며 무용과 연결할 수 있는 해부학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매틱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 학습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에 해부학

및 소매틱 관련 내용의 분량을 늘였으며, 필라테스와 요가에서 활용되는 소매틱 및 해부학 관련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학생들이 사전에 학습, 경험한 지식들을 융합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둘째, 소매틱 관련 동시대의 학술담론 및 방법론들을 다채롭게 수용하여 실용적이고 시의적인 강의내용으로 융합한 학제적 교과목이다. 이 수업은 소매틱 관련 다양한 방법론들에 관해 개괄함으로써 학생들이 각 방법론과 이론적 체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된 수업 시간 안에 다소 많은 종류의 학제를 다루기 때문에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털과 해부학을 제외한 내용들은 2회 내지 3회의 분량으로 짧게 구성되어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한계점이 있다. 또 자격증 과정이 대학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로 구성된 짧은 시간동안 소매틱의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전체 학습 과정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공실기를 활용한 창작 작업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은 무용 전공생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진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의 내용과 현황을 설명할 수 있음에 교육적 의미가 있다.

현재의 소매틱은 대학보다는 외부 기관의 전문 프랙셔널러들에 의해 최소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수료할 수 있는 전문 자격 과정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알렉산더 테크닉, 펠튼크라이스 메소드, 타말파의 경우 국내 공인 기관이 제공하는 자격 과정에 진입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 자본, 노력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해당 분야에 완전히 진입하기 위한 사전 학습으로서 대학무용교육이 기능할 수 있다. 또 ISMETA의 소매틱 움직임 교육자/치료사 자격과 LIMS의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털의 경우 국내 공인기관이 부재하여 해외를 오가며 학습과 평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체제에서의 소매틱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향후 전문가 자격과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학생들이 기존의 이론 체계와 소매틱 유형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자신만의 바디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소매틱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인에게 최적화된 움직임 훈련 방법을 개발하여 일상적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소매틱 전문가 및 교육자 양성을 위해서도 기존의 소매틱 접근법을 깊이 있게 학습하되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나아가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교육목적과 상응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각 소매틱의 유형 및 학문적 체계 사이의 연결성을 탐색하고 빈틈을 파악함으로써 자신만의 창의적인 바디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대학생들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넘나들며 일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진로를 창출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고, 그러한 면모가 우수할수록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또 무용 전공생 대부분은 예술가로서의 무용 자질을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학습해온 만큼 무용수, 안무가, 무용교육자 관련 진로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소매틱이 지닌 치유 및 교육의 효과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학무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소매틱이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하고자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국내외의 논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매틱 관련 학술담론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소매틱의 원리에 동반하는 학제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학교의 무용 전공 교과과정의 흐름 속에서 소매틱 관련 교과목의 개설 흐름을 파악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운영한 소매틱 관련 교과목의 특징을 학제적 특성과 연결 지었다.

연구 결과, 학술담론에서 나타나는 소매틱의 정의와 특성은 ‘체험하는 몸으로서의 소마, 그리고 몸과 정신의 합일’, ‘다학제적 접근과 영역의 통합’, ‘변화하는 삶의 과정과 주변의 포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특성에 합일, 다학제, 변화, 포용의 키워드가 들어 있어 현재 대학무용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요소들로 적용이 가능하다. 소매틱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통합, 융합, 합일, 연결을 강조하고 이것이 몸과 움직임의 훈련을 통해 나와 주변과 세상을 재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대학무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은 몸과 정신, 요법과 요법, 학문과 학문, 장르와 장르, 나와 주변과 세상의 경계를 허물어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역량 개발과 관계 깊다.

또 대학무용교육의 흐름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과과정 변화를 통해 살폈을 때, 무용과가 개설되었던 60년대를 기점으로 이론 과목의 교과목 수가 증가하고 세분화되었으며, 무용학의 하위 학문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컴퓨터공학 등의 다채롭고 시의적인 타학문들과의 융·복합을 꾀한 시도가 돋보였다. 그 중 소매틱의 이론적 체계와 관련 있는 교과목은 기능학, 해부학, 생리학, 움직임분석, 대체의학을 무용과 연결하여 구성된 교과목들로 나타났고 소매틱의 특정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은 부재하였다. 전공으로서의 춤 스타일, 구조, 의미는 고정적으로 유지하되 그를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하는 시도가 교과과정 흐름에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자가 운영한 ‘무용치료 및 바디컨디셔닝’의 수업 내용과 특징을 파악한 결과,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탈의 움직임 훈련과 개념을 다룬 강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그 외의 내용 역시 해부학, 움직임분석, 무용동작심리치료, 상해와 치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매틱을 활용한 학제적 교과목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수업의 특징은 강사의 역량과 학생의 학습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 안무, 교육, 기획, 연구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소매틱 프로그램 설계를 이끈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 수업의 내용은 학제적 교과목으로서의 소매틱 교육프로그램 혹은 타 교과목에 활용될 수 있는 소매틱의 두 가지 양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매틱의 특정 분파들이 각기 개발하고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학무용교육이 실현되고, 훗날 자격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교과목의 수와 시간 하에 무용전공생들의 열린 진로와 시각을 지지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변화라고 예상한다. 이에 소매틱의 학제적 특성이 대학무용교육의 확장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중심과 주변을 아우르는 교과목 구성 및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희(2017), “소매틱 움직임 교육/치료를 위한 기본 원리 연구”,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5(1)**, 21-36.
- 김은정(2016), “무용콘텐츠에 내재된 소매틱스의 뇌과학적 메커니즘”,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365-373.
- 김정명(2015), “토마스 하나의 소마이론: 체험양식의 변조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36**, 127-140.
- 박혜연, 조기숙 (2016), “소매틱(Somatics) 기반 움직임 교육원리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42**, 141-168.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편) (2016), **사라지지 않는 예술, 무용이론을 말한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경은(2018), “소매틱 즉흥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계기반연구”,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18(2)**, 83-96.
- 이정명(2014), “심신통합적 움직임 교육으로서의 무브먼트 리추얼(Movement Ritual)에 관한 고찰”, 한국무용기록학회, **한국무용기록학 32**, 163-184.
- 이정민, 유화정 (2021), “소매틱 경험과 의미에 대한 협력적 저문화기술지: 라반/바르테니에프 연구소의 바르테니에프 퍼던멘탈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21(3)**, 89-103.
- 임성용(2020), “소매틱 교육의 임상이론 탐색 및 체험 사례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임수진, 김수연 (2018), “대학교양 교육과정 개발의 융합적 접근 - 소매틱스(Somatics)에 기반한 체육 교양강좌 사례 연구”,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57(3)**, 117-133.
- 조기숙(2009), “주체적인 몸 살아있는 춤-몸학(Somatics)에 기반한 안무방식에 관한 탐구”,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 259-276.
- 태혜신, 박명숙 (2012), “무용학의 융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605-615.
- Alexander, F. M.(2019), *The use of the self*, London: Orion Publishing Group.
- Barlassina, L., Newen, A.(2014), “The role of bodily perception in emotion: In defense of an impure somatic theor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9(3)*, 637-678.
- Beaudoin, C.(1999), “Integrating somatic learning into everyday life”,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4(1)*, 76-80.
- Eddy, M.(2002), “Somatic practices and dance: Global influences”, *Dance research journal 34(2)*, 46-62.
- _____ (2009), “A brief history of somatic practices and danc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eld of somatic educ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ance”, *Journal of dance & somatic practices 1(1)*, 5-27.
- Feldenkrais, M.(1972), *Awareness through movement*, New York: Harper&Row.
- Hackney, P. (2000), *Making Connection*, 신상미, 김재리(역, 2015), **몸 움직임 세상 연결하기**, 서울:대경북스.
- Hanna, T.(1976), “The field of somatics”, *Somatics/magazine journal of the bodily arts and sciences 1(1)*, 30-34.
- _____ (1988), *Somatics: reawakening the mind's control of movement, flexibility, and health*, Boston: da capo press.
- _____ (1980), *The body of life*, 김정명(역, 2013), **부드러운 움직임의 길을 찾아**, 경기:소피아.

ISMETA 공식 홈페이지

<https://ismeta.org/ismeta-approved-training-programs#!directory/map>
(2023.6.1.)